“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오늘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생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 오늘 예배 직후에 바이블데이 준비로 방장 모임이 있습니다.
- 멋쟁이학교 학년별 여행이 9일(월)~12일(목)까지 전국에 흩어져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이지성 목사 · 저경하 사모 가정 (결혼 기념)
정재훈 목사 · 장영미 전도사 가정 (정이안 생일)

강단을 꽃으로 : 양기모 · 이명호 집사 (결혼 기념)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23 호
2025년 6월 8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사랑방 가족들게
선교통신으로 안부인사 드립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모두 평안하시지요?

저희도 동역자들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으로 주님 은혜가운데 잘 있습니다. 이곳도 6월로 접어들면서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겠지요?~
우리 모두 지지치 말고 영육 간에 늘 승리하는 여름되시길 소망합니다.

1. 지난달은 본부 사역으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속한 예장통합 선교사훈련원 부원장 직을 맡아 스무가정의 신임선교사들과 6주간 선교훈련을 가졌습니다.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서도 예수복음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도 많이 배우며 도전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죄송한 것은, 사역지를 오래 비우게 된지라 찾아뵙고 인사도 못드리고 급히 귀임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2. 훈련을 마칠 즈음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뒤 공부했던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 졸업 25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매년 개교기념일에 신대원 졸업후 25주년이 되는 기수들을 초대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저도 마침 시간이 맞아서 참여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동역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우정을 나누며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앞에 살아있음을 감사했으며, 예수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며 사역지로 복귀하였습니다.

3.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재외국민투표에 한 표를 행사하며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의 비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길 기도했습니다. 고3인 막내 임성령도 인생 첫 투표의 권리를 누렸습니다.

4. 얼마 전 인천의 주안대학원대학교 교수님과 학생들이 선교현장실습으로 요르단을 방문하셔서 함께 이 땅을 돌아보며 선교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동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요르단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중동의 변화하는 모습과 그 속에서 요르단의 선교적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많은 선교의 발걸음들이 이 땅으로 향하는 꿈을 꿉니다.

5. 예수복음과 빵을 나누려 오늘도 난민가정 심방을 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해 주시길 기도해주십시오. 그분은 위로의 영이시며 회복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더운 여름 늘 건강하시고요, 주 예수님의 평안을 빕니다.

샬롬샬롬

요르단에서 임채정 선교사 드립니다.

한주간의 말씀

"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
<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426, 265 / 420
기도 :
성경 : 레위기 13:1-46
제목 : 제사장은 피부병 환자의 정-부정을 선언해야 한다

1. 제사장은 피부병 환자의 정-부정을 선언해야 한다 (What)
 1) 반복 단어: 제사장(52) 살갗(33) 피부병(18)
 2) 반복 문장: 선언(하여야 한다)(19) 부정하다(18) 정하다(16)
 3) 내용 중심: 제사장은 피부병 환자의 정-부정을 선언해야 한다.

2.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지키는 일에 힘쓰라 (Why)
 1) 본문은 결례법<11장-15장> 가운데 피부병에 관한 결례법이다.
 2) 결례법은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다.<11:44-45>
 3)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지키는 일에 힘쓰라.

3.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을 지키십시오 (How)
 1)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벧전1:15-16>
 2) 거룩한 사람답게 거룩한 성품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골3:12>
 3)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딤전4:5>

아들, 대체복무

저희집 큰 아들, 의건이는 "충주 구치소"에 있습니다. 의건이는 오랜 시간 준비했었고, 가족과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며 격려했습니다. 2006년 저희 가족은 첫 번째 안식년을, 영국에 있는 '다벨-부르더호프 공동체'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평화주의자 예수"에 대한 도전을 받았고, 예수원으로 돌아와서 아내는 10살이 되는 의건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던 해부터 의건이에게 도전했습니다.

저는요! 저는 아들에게 평화를 선택하고 병역거부자가 되어 감옥가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선택하면 하겠는데, 아무리 그리스도를 따름에 대가로 지불되는 고난이라 해도, 아들에게 선택하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의건이가 스스로 선택할 나이가 되었을 때, 갈등의 벽에 부딪쳤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부모에게 배운 것으로, 자신의 선한 의지, 옳다고 여기는 생각,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보이려는 마음에서 선택한 것에서 오는 혼란과 갈등은, 자신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원 훈련도 받고, 호주에 있는 브루더호프 공동체도 방문하고, '전쟁없는 세상'모임에도 참여하고, 기독교인이면서 병역거부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평화에 대해 질문하고, 예수에 대해서 묻고 다녔습니다. 지쳐서 포기하고 군에 가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길은 찾지 못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없고, 입영연기를 계속할 방법이 없어 태백에 있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찾는 그 시간 동안, 의건이는 옳은 생각과 신념이 믿음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복잡한 생각이 단순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2년 9월, 의건이는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변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 불일치 판정이 되면서 '대체복무'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얇고 작은 그릇임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성령강림절입니다. 성령님께서 긴 시간 저희들의 작은 부분까지 도우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새싹사랑방 최요한 목사

주일공동예배

인도자 : 정재훈 목 사
오전11시 설교자 : 정재훈 목 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요엘서 2 : 28-29	인도자
*예배의 찬송	15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시편 51 : 5-7	인도자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185, 182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요한복음 14 : 16-26	인도자
성가대 찬양	183	비움사랑방
설 교	"보혜사 성령, 영원히 함께 하시다"	정재훈 목사

〈 성 찬 식 〉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191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410(3)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임상희 전선희 / 봉헌위원 : 이충환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공동기도문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신 하나님,
저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보혜사 성령, 영원히 함께하시다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는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히 돌보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살피고 믿음과 내면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 성령께서는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영적인 질서와 진리는 성령 안에 거할 때 깨달아집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말씀의 저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세상의 가르침이 거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진정행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아빠와 함께 캠프'는 꾸러기들이 일 년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입니다. 아빠들은요, 새내기 아빠는 조금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지만 2년차 3년차 캠프를 맞이하는 아빠는 꾸러기들 못지않게 아빠캠프의 매력에 빠져 아빠캠프 예찬론자가 되곤 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행복한 '아빠와 함께 캠프'를 지난 6월 5일과 6일, 1박 2일 동안 공동체에서 했습니다. 아빠와 꾸러기만의 보금자리 텐트를 운동장에 친 후, 꾸러기와 아빠의 서툰 솜씨로 식사를 준비해 먹고, 가면을 만들어 쓰고 춤추기, 가족소개와 장기자랑, 재미있는 여러 놀이, 11가지 보물(식물)찾기와 책 만들기, 신나는 물총놀이… 1박 2일 동안 촘촘한 일정을 아빠와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으로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힘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함께한 아빠캠프가 꾸러기들과 아빠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소중한 추억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퐁당퐁당 휴일이 있는 한 주를 보내며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엔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또 현충일이 있어서 아직 어린 친구들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약속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꾸러기학교의 아빠와 캠프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꾸러기 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고, 미국에서 돌아오는 멋쟁이학교 선배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지난주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네요.

날이 점점 더워집니다. 어린이학교의 친구들은 수업이 끝나기만하면 밖으로 뛰어나가 노는데 점점 더워지고 이제 몇 주면 장마도 오게 될 거라 밖에서 지내기 좋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이 느껴집니다.

6월도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게 보내겠지만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지식보다 삶을 배우며 행복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어린이들이 되도록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멋쟁이들은 모두 설레임을 갖던 한 주로 보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는 대선을 치른 화요일에 수업을 해서 멋쟁이들의 아쉬움이 컸지만, <없이 있는 마을> 공동체에서 오신 손님을 맞이하고 또 바비큐를 즐기는 등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학생회 주최로 종강발표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정하는 전체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공동심화학습을 마무리하며 신나는 물총싸움으로 흠뻑 젖는 물놀이로 한바탕 신나게 뛰놀았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예술제 대회를 나가기 위하여 풍물 드림팀을 만들어 연습에 매진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6월 6일 현충일에는 기다리던 멋쟁이학교 4학년과 정재훈 목사님, 박예나 선생님이 귀국하여 반갑게 재회했습니다. 감동스런 포옹 너머로 보이는, 많이 탄 피부가 미국에서의 생활을 짐작케 합니다.

다음 주에는 학년별여행을 떠납니다. 전국 각지로 흩어지며 친구들과만의 특별한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선후배가 항상 있는 학교생활속에서 갖는 친구들끼리만의 각별하고도 소중한 기간입니다. 즐거움이나 안전과 함께,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여행으로 다녀오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요즘 살아가는 이야기

어느덧 2025년도 중반이 되어 버렸습니다.

올 한 해는 아무것도 안하고 조용히 한 해를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지내지를 못하고 절반이 지나가네요.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데, 몸과 마음이 따라 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네요.

오늘도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보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하다 보니 어느덧 다섯 시가 넘어 갑니다.

주보 글을 써야 하는데 제목은 생각나지 않고 마음만 바쁘게 나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루일은 다섯 시에 일어나서 일기예보를 먼저 보고 잠잔 시간(?)을 알아보고, 기본 식사를 하고 아침 약을 먹고 나면 일곱시 반, 조금 더 있다가 나가면 아홉시가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한 바퀴 돌고 나면 열한시. 다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나와서 산책을 하고 다니면 시간개념이 사라집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나와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 잠자리 준비하고 나면 열시쯤. 한 두 시간 어물정 거리다가 자면 열두시……

이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슬아슬한가 봅니다. 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아무튼 마음만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렵니다.

그루터기사랑방 나송주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찬 송 : 459, 218
성 경 : 마태복음 5:43-48
말 씀 :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위해 <수단의 평화를 위해>
20년에 걸친 분쟁으로 840만 명이 넘는 수단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다. 3일(현지시간) 유엔 공동성명에 따르면 수단 알코마 지역에서 이들 국제기구의 합동 호송대 트럭 15대가 공격당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없이 있는 마을>
지난 화요일 없이 있는 마을에서 중학교 과정을 시작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사 3명이 방문했습니다.
없이 있는 마을은 양평에 있으며 마을 밥상, 마을 예배, 더불어 배움. 보육품앗이, 마을 잔치, 몸살이, 마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1) 꾸러기 학교 아빠와 함께하는 캠프
2) 멋쟁이 4학년 귀국, 교사, 부모님

< 생활공동체 소식 >

대선과 현충일로 이틀이나 일상을 벗어나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멋쟁이학교는 대선 날에 정규수업을 했고 꾸러기학교는 아빠 캠프가 있어서 교사인 공동생활식구들은 휴일을 반납하고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대선 날에는 없이 있는 마을 공동체 중등과정 선생님 세분이 방문하셨고, 현충일에는 멋쟁이학교 4학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